

국 제

러, 유엔 對北제재 합류 급선회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후 지난해 10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을 때 반대파를 표명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 6개월여 만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후 6개월이 지난 10월 14일 안보리가 채택한 북핵관련 대북 제재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와 미국 언론들이 지난달 30일 일제히 보도했다.

러시아는 당초 미일 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때 중국과 연대, 이에 제동을 걸면서 일관되게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의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푸틴, 반대 표명 6개월만에 이행명령 서명 7월 미-러 정상회담 결림돌 제거 포석인듯

은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초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5발 중 1발(대포동 2호 미사일)이 40여초 만에 공중 폭발, 실패로 끝나면서 파편이 러시아 영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계속 비협조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있다"면서 "따라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면서 독자적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런 정책

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연방내 모든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북한에 전자, 헬기, 전투기, 전함, 잠정차, 중화기, 미사일 발사대를 수출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소자가 있는 어떠한 물질의 대북 반입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WMD)나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열차 기술자와 전문가 등 북한인의 러시아 입국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각기를 맞을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2차대전 중 일본의 잔혹행위에 희생된 중국인 당사자들과 이들의 친척들이 지난달 31일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대일(對日) 피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일본법원의 패소판결에 항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태 현재 "TRT 등 4개정당 해산하라"

(〈특신 前총리가 창당한 당〉)

태국은 5년간 정치활동 금지

태국 사상 처음으로 5개 정당 가운데 태신 치나와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 락 타이'(TRT)를 비롯한 4개 정당에 대해 정당 해체 판결이 내려져 정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타이 락 타이'(TRT)를 창당한 태신 치나와 전(前) 태국 총리는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TRT는 2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TRT는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어 재판부는 해체를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현재는 판결문을 통해 작년 '4·2 총선' 당시 타마라 이사랑구라 TRT 부총재와 풍악 푼타폰피살 사무총장이 파타나 차타이(타이 국가발전)당 등 군소정당의 후보를 매수해 총선에 출마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타마라락은 태신 정 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풍악은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태신 전 총리를 비롯한 당간부와 146명의 TRT 소속 전직 상·하의원은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방콕=연합뉴스

日 고법, 한국인 근로정신대 항소 기각

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군수 공장에서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 항소심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나고야 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달 31일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나고야지방법판소는 "2005년 2월 판결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정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 권리

등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합정의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해 원고들은 전원 항소했다. 원고측은 "한·일정권협정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한데 지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군대 위안부와 혼동되면서 귀국후에도 차별을 받는 등 원고들의 인생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알 카에다 새로운 테러 준비중"

英紙, 조직 복원·근거지 구축

알 카에다가 수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테러공격을 준비하는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알 카에다가 오사마 빈 라덴과 2인자인 알 자와히리와 함께 파키스탄 정부의 통제범위 밖인 북서부 와지리스탄 북서부 산악지대에 근거

지를 마련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9·11 테러사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주도의 공세에 생포를 피하면서 도주해 급급하던 과거 알 카에다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알 카에다가 전 세계의 세포조직에 전략적인 지시를 내릴 정도로 조직을 복원,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런던=연합뉴스



공룡의 외출

시드니의 초등학교생들이 지난달 31일 호주박물관 앞에서 공룡 드리오사우루스로 분장한 스탠트맨이 자신들 주위를 걸어다니다 재미있어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美 외교·국방정책에 '한국계 파워'

국무부 이어 국방부 한국과장에 스티브 박 임명

NSC 前 보좌관 '빅터 차' 공백 너끈히 메울 듯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결정의 실무에 한국계 입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국무부 한국과장에 한국계인 검사 출신 성 김(한국명 김우영)이 임명된 데 이어 스티브 박 중령이 국방부 한국담당 실무과장으로 승진돼 작금의 영향력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동아태분야 여성 연구원으로 일해온 한국계 발버나 황도 지난해부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아시아담당 수석 특별보좌관으로 눈에 보이지 않

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성 김 과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유리 김(한국명 김유리) 국무부 한국과 북한팀장도 한국계로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이들 4인방은 최근까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일해온 데올라나 빅터 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스티브 박의 국방부 한국과장(director) 발탁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벨상 2차례 수상한 황도 지난해부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아시아담당 수석 특별보좌관으로 눈에 보이지 않

래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한국분야에서 고위직책이 신설되면서 다음달 물러날 마이크 피네한 한국과장의 후임자는 상무부 출신 메리베스 모건 한국실장이 사실상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자 가정 출신인 박 중령은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1991년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플리스 후임으로 내정된 제임스 신 차기 부차관 밑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대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미 한국계가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성 김은 크리스토퍼 힐 동태 담당 차관보와 아주 친밀한 사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신임도 두둑하다는 평가다. /워싱턴=연합뉴스



매설 지뢰! 이제 꿀벌로 찾는다

1991년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크로아티아는 내전 기간에 매설된 지뢰로 골치를 앓고 있다. 1998년 이래 지뢰 사교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뢰 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25만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케지 교수는 대형 그물 천막 안에 벌집을 놔두면 벌들이 멀리 날아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일부러 폭발물을 매설한 지점 여러 곳에 먹

이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후각이 발달한 벌들이 폭발물의 냄새와 먹이의 냄새를 혼동해 그물 천막을 나와서도 폭발물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벌을 훈련하는데 3~4일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꿀벌을 이용한 지뢰 탐지 기술은 지뢰 제거 작업이 실시된 후 발견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지뢰를 찾아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SONY BRAVIA Happy Family 페스티벌

5월에 브라베어를 샀다 PLAYSTATION®3의 즐거움까지 쓰여졌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Sony가 준비한 즐거움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날을 만들어 보세요

즐거움1, 2, 3

제품구입 및 문의 | 소니 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 | 소니 공식서비스센터 062)514-3000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다양한 기능 습득 (시간: 9:10-13:00)

주책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자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주책관리사 (월-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공인중개사 (월-토)	교육기간: 7/2-8/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주책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기간: 7/7-8/26 (토14:00-20:00, 일10:00-17:00)

개강 6/4 사무자동화 (월-금)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대비

기타 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의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저지직강
-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강의 DVD 녹화대여로 반복학습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동부경찰서 옆 http://www.hdedu.co.kr

전남 행정직 7급 21명, 9급 154명, 시험 10월 13일 시행 =

7.9 급 공무원 대비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채용인원: 000명(약 50명) 이상 필듯, 합격에 절호의 기회!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출원, 응시율 9:1 경쟁이었다!

서울 7월 8일 · 전남 6월 23일 · 전북 9월 8일 시행 =

개강 6월 1일 주야(출입)반 모집 (현재 상담 접수중)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

www.mdgosi.co.kr ☎ 222-4560

삼성빌딩 임대

층/별/안/내

- 7F 사무실
- 6F 146평 분할가능 중·연립 사무실
- 5F 146평 분할가능 중·연립 사무실
- 4F 146평 분할가능 중·연립 사무실
- 3F 146평 분할가능 중·연립 사무실
- 2F 남양알로에
- 1F LG텔레콤 1 임대 33평! 골프에어

★대형주차장 완비
★병·의원 입주시 임대료 원로시 30% 할인!
★재개발지역 확정, 투자기회 높음
★1층 33평(의류, 약국, 서점 등)

동강대정문, 동래대, 남부우, 동광주, C, 사거리

건물위치: 북구 우산동 258-3(말바우사거리) | 관리사무실 | (062)526-3140 H.P 010-8285-3170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의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6월 1일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08년 편입시험 대비반 (일반편입/학사편입)

수준별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